

특집 - 여성과 컴퓨터

‘장미빛’ 정보화 논의 ‘여성소외’ 낳고 있다

가사, 육아부담 등 접근 기회·조건 무시한 평가절하는 성차별 심화시켜

요즘 우리 사회는 정보화사회라는 신대륙을 향해 항해하는 배에 비유된다. 그러나 ‘제3의 기술혁신’이라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에는 각론만 있고 총론이 없다. 즉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삶의 질’을 담은 대안의 사회를 지향한다기 보다 ‘세계화 논쟁’에 휩쓸려 너도 가니 나도 가야하지 않느냐는 ‘개인플레이’와 ‘떠밀리기식’ 논쟁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정보화 마인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보화사회의 핵심은 쌍방향커뮤니케이션에 있다. 때문에 정보화사회는 일방통행식의 대화구조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대로 간다면 이들의 사회적 통합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 소외를 유지하고 암묵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저에는 여전히 한 성(性)이 지배하는 일방통행식 구조가 놓여 있다.

(편집자 주)

정신경(30) 대리는 (주)대우정보시스템 전략시스템부에서 5년째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하며 살아가는 정보전문여성이다. 정 대리는 그간 속도감있는 정보산업의 특성이 나름대로 성취도를 안겨 주었고, 무엇보다 ‘육체적 힘’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계급에서 조금은 떨어진 안전지대에서 일한다는 이점때문에 별다른 고민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정 대리의 고민

이런 정 대리가 요즘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나’ 하는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정 대리는 아이가 하나였을 때만 해도 잦은 야근이나 과다한 업무량은 건달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둘째아이가 생기고 부터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던 오기가 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최근에는 잘 참아주던(?) 남편마저 ‘웬만하면 옮기지’라는 은근한 압력을 주기 시작했다.

정 대리는 그래도 자신은 나은 편이라고 자위한다. 다행히 낮에는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맡아주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더라면 정 대리 또한 ‘일을 포기할’ 수많은 여성들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정 대리의 모습은 컴퓨터를 잘 다룰 줄만 알면 남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고, 오히려 여성이 우위에 오를 수 (도) 있다는 많은 미래학자들의 예견과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미래학자들은 왜 정보화사회를 ‘여성의 시대’라며 장미빛 환상을 예견했던 것일까.

실제로 정보혁명은 과거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많은 ‘열린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

다. 굳이 앞으로 생겨나는 직종에는 2/3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정보화시대에는 더이상 ‘근육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의 진출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에는 설득력이 있다. 이는 줄곧 체력경쟁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에게 전문기술만 있다면 남성과 공평하게 겨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거칠고 저돌적인 남성적 특성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줄 아는, 섬세한 여성적 감수성이 훨씬 유효하다는 주장에 따르면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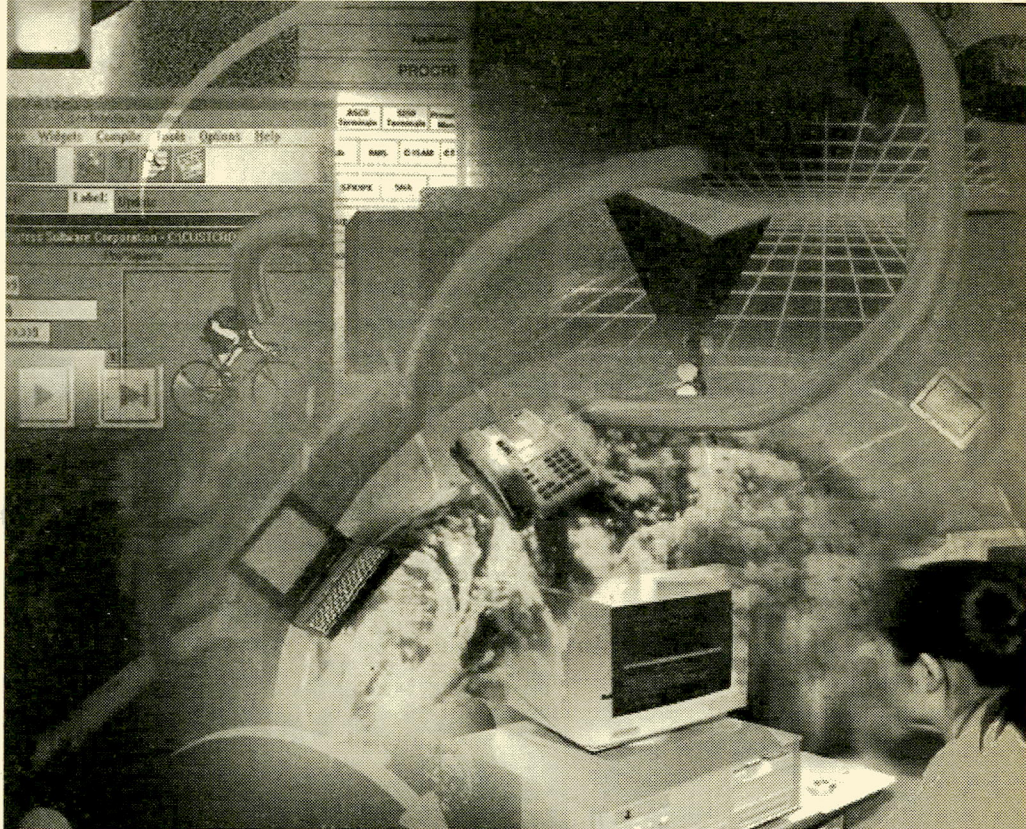
자 어린이마저도 시혜의 폭이 좁다. 이러한 여성들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정보화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컴퓨터에 대한 여성들의 벽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전제에서 컴퓨터문화의 남성독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컴퓨터가 성희롱을 한다?

정보화사회를 재는 척도의 하나로 사람들은 쉽게 PC통신 사용수준을 예로 든다. 하이텔의 경우 현재 이용자가 69만명을 넘었다. 20, 30대에 집중돼 있는 사용자들 가운데 여성은 17%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3%가 남성들이다.

이렇게 컴퓨터는 여전히 남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를 얻거나 제공하는 기회의 불평등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김은주(29, 주부) 씨의 얘기가.

“남편한테 배워 집에서 통신을 하면서 나도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통신에 오르는 주제도 따끈따끈한 사회적 쟁점들이고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 재미있어요. 또 내가 알고 싶은 전문적인 내용을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집안에서 지내다



정보화사회는 여성들에게 진정 ‘장미빛 미래’인가. 컴퓨터를 기계로, 기계를 만지는 일은 곧 남성의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여성을 정보화로부터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다.

서의 정보화는 정보가 곧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사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보의 편중과 소외는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지 못하는 자 사이의 괴리, 즉 남녀간·계층간 불평등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김 씨는 또 남성중심의 컴퓨터문화가 여성을 낙오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기도

를 놓고 토론하는 경우에도 남성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때가 많아 토론이 아니라 충고나 훈계로 이어지기도 있구요. 그럴 때면 내가 컴퓨터로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게 아닌 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재택근무 이미 문제 드러나

정보화사회가 일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야 하는 여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것이라는 예측 또한 만만치 않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조옥라(서강대 인류학) 교수는 <정보사회의 산업환경변화와 여성노동 - 재택근무자에 대한 심층연구>라는 논문에서 “재택근무제는 기존의 주부사원들이 지니고 있는 집안 일과 병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여성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의 확장은 “새로운 방식의 여성노동을 제시하기 보다

는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지속되어온 성별분업형태를 정보화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의 진보를 활용해서 더 강화하고 여성들에게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조 교수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의 아이에 대한 편견에 찬 평가속에서 재택근무자들에게 전산입력직이든, 프로그래밍직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 어린 자녀를 두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죄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회는 더이상 ‘육체적 힘’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남녀간의 성차별도 상당히 개선하리라는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신상의 성희롱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통신이용 여성 13%, ‘여성적’ 프로그램 개발 시급
정통부 여성정보인력 정책 석장의 자료가 전부

서라도 여성들이 정보화의 최전방으로 진출해야할 것처럼 보인다.

또 정보화사회의 특성을 쌍방향커뮤니케이션과 직접참여라 한다면 그간 일방통행식의 남성중심사회가 소외시켜온 사회적 약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네트워크를 형성해 핵심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테크놀로지의 동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처럼 ‘될 것이다’ 또는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자녀 교육용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부들을 포함해 그나마 컴퓨터세대라 불리는 요즘의 여학생이나 여

보니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떨어진데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니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보다 ‘무식’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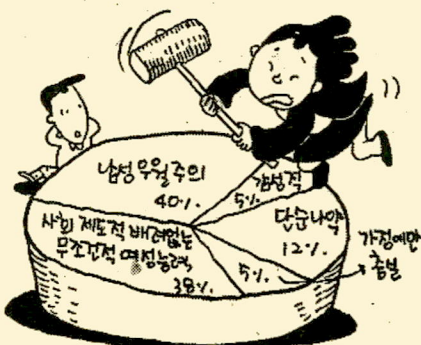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사회에

했다.

“통신을 시작하면 보통 4대 1 정도의 남녀성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성적인 이름을 올리면 남성들은 금방 관심을 보이죠. 그런데 그 관심이 너무 단순하고 어린 것들이라 금방 나오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한 주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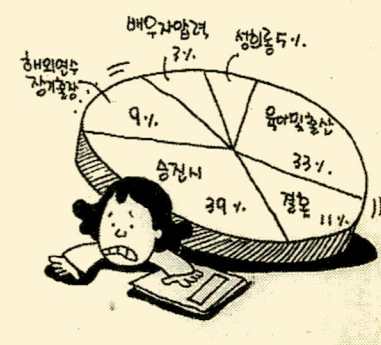
다음은 월간 인포노믹스가 정보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전문인력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표화했다. 1백2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직장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때를 여자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밀려났을때, 육아 및 출산, 결혼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고쳐져야 할 편견으로는 남성우월주의와 사회제도적 배려가 없는 무조건적인 여성능력의 문제, 단순히 나약하다는 평가 등을 꼽았다.



〈고쳐야 할 남성편견〉



〈활용도〉



〈직장생활 어려웠을 때〉